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

보도시점 2024. 9. 10.(화) 11:00 < 9.11.(수) 조간 > 배포 2024. 9. 10.(화)

통상교섭본부장, 한-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

- 9.10.(화) 워싱턴 D.C., 9.11.(수)-9.12.(목) 뉴욕 방문
- 미 행정부, 씽크탱크, 기업 등 핵심 인사들과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 전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.10.(화)부터 9.12.(목)까지 미국 워싱턴 D.C.와 뉴욕을 방문하여 상무부 부장관·차관을 포함한 행정부, 씽크탱크, 미국 정·재계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.

미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방미는 한-미 간 공고하게 지속되어 온 경제·통상·산업 협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. 아울러 미국에 투자·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, 정계 인사 등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.

또한 정인교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-미 경제안보 콘퍼런스(9.10),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(9.11), 한-미 경제협력 세미나(9.12) 등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여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, 정·재·학계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.

정인교 본부장은 "이번 방미를 통해 한-미 경제·통상협력을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평가하며, "미 대선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나, 한-미 협력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진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은형 (044-203-564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